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차익실현과 경기둔화 우려에 하락

2023.11.28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경기둔화

- 미 증시는 순조로운 국채입찰과 신규주택판매 등 경제지표 부진에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하락 마감.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8bp 하락하며 4.4%를 하회하였고 달러인덱스는 103선 초반까지 하락. 이에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12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경기소비재가 강세를 보였고,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 러셀2000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폭을 축소하는 흐름 보여. (다우 -0.16%, 나스닥 -0.07%, S&P500 -0.20%, 러셀2000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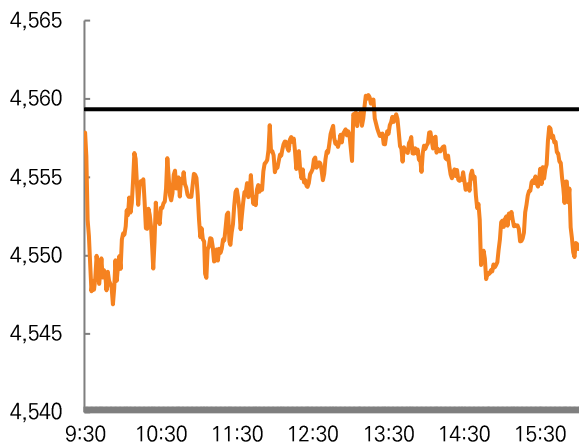
특징 종목: 이커머스 강세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부동산(+0.38%), 경기소비재(+0.19%), 유틸리티(+0.09%), IT(+0.04%)는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64%), 에너지(-0.40%) 등 8개 업종은 하락.
- (상승) 기록적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소식에 아마존(+0.67%), 쇼피파이(+4.89%), 엡시(+2.97%) 등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주가 강세. 또한 '선구매, 후지불(BNPL)' 결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에 어퍼홀딩스(+11.97%)가 강세.
- (하락) 아이로봇(-17.19%)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로봇청소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급락. 앨버말(-6.28%)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약세. Global X 리튬&배터리 ETF(LIT) 역시 2% 넘는 하락 기록.

한국 증시 전망: 2,500p

- MSCI 한국 지수 ETF는 0.39%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96.8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2%~0.4% 출발할 것으로 예상.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째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 기술적 저항과 추가 모멘텀 부재에 따른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 미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 환경은 개선됐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이슈와 홍콩 단기자금시장 조달금리 급등 등의 역내 이슈는 조심스러운 부분. 다만, 글로벌 연말 소비 호조에 대한 기대는 하방 지지요인이 될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95.66	-0.04	상해종합	3,031.70	-0.30
KOSDAQ	810.25	-0.58	홍콩항셍	17,525.06	-0.20
DOW	35,333.47	-0.16	인도센섹스	65,970.04	-0.07
NASDAQ	14,241.02	-0.07	유로스톡스 50	4,354.41	-0.40
S&P 500	4,550.43	-0.20	영국	7,460.70	-0.37
캐나다	20,031.89	-0.35	독일	15,966.37	-0.39
일본	33,447.67	-0.53	프랑스	7,265.49	-0.3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금리하락 ② 사이버먼데이

미 증시는 순조로운 국채입찰과 신규주택판매 등 경제지표 부진에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하락 마감.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8bp 하락하며 4.4%를 하회하였고 달러인덱스는 103선 초반까지 하락. 이에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12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경기소비재가 강세를 보였고,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 러셀2000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폭을 축소하는 흐름 보여.

국채입찰 / Eco리뷰: 신규주택판매,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이번 주 예정된 약 3,3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 중 75%에 해당하는 2,520억 달러의 국채 입찰이 이 날 진행. 비교적 강한 수요를 확인하며 전량 소화한 가운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8bp 가까이 하락하며 4.4%를 하회. 또한 달러인덱스도 약세를 보이며 103선 초반까지 하락.

여기에 10월 신규주택판매는 67.9만건으로 발표. 이는 지난 달 수정치 71.9만건과 시장 예상 72.1만건을 크게 하회한 수치로 전월대비 5.6%나 위축된 결과. 신규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40만 9,300 달러로 전년대비 17.6%나 하락했는데, 이는 1964년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율. 가격 급락의 원인은 판매 촉진을 위한 주택 건설업자들의 할인 등 프로모션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 실제 주택건설업자 주택시장심리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건축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할인 등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했다고 답해. 10월 판매의 부진은 모기지 금리 급등의 원인이 큰 만큼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에 따른 주택 판매와 11월, 12월 계절적 수요 영향으로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커.

11월 달러스 연은에서 발표한 텍사스 제조업지수는 3개월 연속 악화하며 -19.9를 기록. 이는 올해 7월 이후 최저치. 생산지수는 전월 +5.2에서 -7.2로 떨어졌고, 신규주문지수는 18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둔화폭이 전월 -8.8에서 -20.5로 더욱 확대되는 등 주요 세부항목들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여. 텍사스 지역은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석유 및 석탄 제품 생산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조업 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결국 신규주택판매와 텍사스 제조업지수의 부진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국채 입찰 결과와 함께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과 달러 약세를 야기. 시장은 이 같은 부분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후반 나올 예정인 PCE 물가와 OPEC+ 회의 등 이벤트 결과에 주목할 필요 있음.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는 11월 연말 쇼핑의 마지막인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지출이 최대 124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선 결제, 후 지불(Buy Now, Pay Later)’ 방식의 구매가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클라나(Klarna)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거의 절반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청구서를 전액지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Quantum Met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BNPL 구매 방식의 평균 장바구니 규모는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이커머스 강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부동산(+0.38%), 경기소비재(+0.19%), 유틸리티(+0.09%), IT(+0.04%)는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64%), 에너지(-0.40%) 등 8개 업종은 하락.

(상승) 기록적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소식에 아마존(+0.67%), 쇼피파이(+4.89%), 오티시(+2.97%) 등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주가 강세. 또한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결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Adobe Analytics 보고에 어퍼홀딩스(+11.97%)가 강세. 크라운캐슬(+3.45%)은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이 리더십과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상승. 도미노피자(+4.52%), 테바제약(+3.46%), 카니발(+1.46%), 등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상승. 크세논제약(+17.78%)은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엇갈린 연구 결과에도 상승.

(하락) 아이로봇(-17.19%)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로봇청소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급락. 옥타(-4.05%), 풋락(-0.90%)는 투자의견 하향 소식에 약세. 앨버말(-6.28%)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약세. Global X 리튬&배터리 ETF(LIT) 역시 2% 넘는 하락 기록.

상품 및 FX시장 동향

금, 6개월래 최고

(금리) 금일 진행된 약 2,5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신규주택판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7bp 가까이 하락하며 4.4%를 기록. 강세 플랫닝(Bull flattening) 나타나면서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금리차는 -51bp 수준에 근접하며 지난 9월 말 이후 가장 큰 역전 폭 기록.

(금속) 국제 금 가격은 전일대비 0.5% 상승하며 온스당 2,012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금의 상대적 투자 매력 부각.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매수와 함께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수요 영향으로 강세 지속.

(곡물) 미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공급 우려 속에 부셸당 4.6달러를 하회하며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미 농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이전보다 430만톤 증가한 3억 8,300만 톤으로 상향 조정. 또한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과 공급도 더욱 늘 것으로 전망. 밀 가격 역시 부셸당 5.3 달러를 하회하며 3년래 최저 수준에 근접. 러시아의 밀 생산량과 수출량이 상향조정 되었고 아르헨티나의 예상보다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작황이 개선됐기 때문.

한국 주식시장 전망

2,500p

MSCI 한국 지수 ETF는 0.39%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96.8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2%~0.4% 출발할 것으로 예상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째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 기술적 저항과 추가 모멘텀 부재에 따른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 미 국채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 환경은 개선됐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이슈와 홍콩 단기자금시장 조달금리 급등 등의 역내 이슈는

마켓
스냅샷

조심스러운 부분. 다만, 글로벌 연말 소비 호조에 대한 기대는 하방 지지요인이 될 전망.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45	대형 가치주 ETF (IVE)	+0.09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50
소매업체 ETF (XLY)	+0.10	소형 가치주 ETF (IWN)	+0.53
온라인소매 ETF (EBIZ)	+0.36	대형 성장주 ETF (VUG)	-0.09
미국 인프라 ETF (PAVE)	+0.32	중형 성장주 ETF (IWP)	+0.4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6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25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1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92	미국 국채 ETF (IEF)	-0.5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02	하이일드 ETF (JNK)	-0.09
바이오섹터 ETF (IBB)	+0.54	신중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04	물가연동채 ETF (TIP)	-0.42
반도체 ETF (SMH)	-0.2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헬스케어	1,525.24	+0.51	+2.00	+6.34
에너지	645.08	+0.45	+2.37	-0.54
필수소비재	742.94	+0.38	+1.26	+5.56
부동산	227.39	+0.36	+0.85	+12.13
소재	509.80	+0.34	+1.18	+8.05
유틸리티	316.50	+0.30	+0.74	+6.11
산업재	897.82	+0.29	+1.34	+10.05
금융	586.16	+0.15	+1.39	+12.09
경기소비재	1,334.14	+0.13	+1.51	+12.72
IT	3,267.66	-0.32	+0.33	+14.51
커뮤니케이션	240.22	-0.67	+0.78	+12.8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54	-2.02	+3.35	Dollar Index	103.403	-0.50	-0.49
브렌트유	80.58	-1.03	-0.04	EUR/USD	1.0939	+0.31	+0.22
천연가스	2.86	-1.45	-6.76	USD/JPY	149.44	-0.08	-0.13
금	2,023.50	+0.51	+0.80	GBP/USD	1.2603	+0.55	+1.13
은	24.69	+2.74	+1.71	USD/CHF	0.8830	-0.14	-0.30
알루미늄	2,216.00	-0.38%	+0.41	AUD/USD	0.6585	+0.41	+1.07
전기동	8,428.50	+0.23%	+1.95	USD/CAD	1.3636	-0.44	-0.63
아연	2,553.50	+0.63%	-0.06	USD/RUB	89.1241	+0.70	-0.43
옥수수	482.50	-1.08	-2.18	USD/BRL	4.9021	-0.03	-0.16
밀	577.25	-1.24	-0.65	USD/CNH	7.1493	-0.04	-0.94
대두	1,330.75	-1.90	-2.17	USD/KRW	1,306.30	+0.68	+0.74
커피	168.15	-0.53	-1.78	USD/KRW NDF1M	1,301.96	+0.19	+0.6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67	+6.23	+3.11	스페인	3.634	+1.20	+3.70
한국	3.775	+6.50	-3.00	포르투갈	3.309	+4.40	+5.60
일본	0.777	+5.20	+2.10	그리스	3.834	-2.40	-2.40
독일	2.643	+2.40	+5.50	이탈리아	4.398	+0.80	+4.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